



특집—“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그 개체성과 집단성”

최지범·김태환·김재인·김대산·조만수·한석현·이은지

『숨-문학의 이름으로』 제18호 발행

문학실험실 펴냄 / 140*240 / 496쪽 / 값 18,000원 / ISSN 2465-7956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그 개체성과 집단성” 특집으로 엮어

이번 호 특집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그 개체성과 집단성”이다. 본지 2019년 상권(통권 8호)의 특집인 “인공지능의 도래, 문화의 미래”의 연장선 위에 있는 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근대적 개념의 개인이라는 가치’에 대한 재고이다. 폭력으로 얼룩진 자본주의적 근대 문명의 맥락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개인의 위기, 개인의 몰락은 최근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이라는 사태 앞에서 새로운 담론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양에서 시작된 근대 패러다임은 전통과 관습, 종교와 이념으로부터 ‘개인’을 해방하고, 특히 신분과 집단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율적 주체로의 ‘개인’을 정립해왔다. 근대 문화의 중요한 초석이 된 예술적 창조성의 이념 역시 그 출발점이 ‘개인’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근대적 분업화를 통해 개인은 기계 부품으로 전락했으며, 20세기에 들어서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조성은 고도로 시스템화된 독점자본의 지배 체제 속에서 질식당해온 것도 사실이다. 눈앞의 현실이 된 인공지능의 시대는 어떠한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개인의 주체성, 나아가 하나의 종의 차원에서 개체성과 집단성에 대한 질문이 쇄도하는 오늘날, 인공지능은 인간의 고유 영역이었던 예술 분야에서도 인간을 대체하려 하고 있으며, 개인이 습득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이러한 시대, 여전히 개인의 이념은 유효한가? 나아가 우리의 개체성과 집단성은 어떠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1. 개체성의 진화와 인공지능의 개체성 | 최지범
2.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 | 김태환
3. 창의와 집단 지능: 인공지능은 창작하지 못한다, 다만 제시할 뿐이다 | 김재민
4. 나르시시즘의 기억 | 김대산
5. 근대적 개인의 소멸과 극장의 몸: 거기 누가 존재하는가? | 조만수
6. 저자의 형상들: 롤랑 바르트의 경우 | 한석현
7. 두 번째 인간: 인공지능에 대한 문학적 상상 | 이은지

특집과 함께—현장의 목소리: 인공지능 앞의 문학

1. AI의 시집에서 내가 쓴 시 발견하기 | 김선오
2. 인공지능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가 | 서이제
3. ChatGPT가 알려준 것들 | 이근화
4. 마음 기계 마음 | 정지돈

작은 기획: 채굴 문화와 미적 감각

이번 호의 <작은 기획>은 “채굴 문화와 미적 감각”을 다룬다. 인간은 문명과 함께 시작된 채굴의 자원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소모하며 회복 불가능한 파국을 흔적으로 남겨왔다. 인류세의 문제에서부터 디지털 문화에 이르기까지, 심효원·윤원화·나원영 세 분의 필자가 각각 건축·미술·음악 영역의 구체적인 작업 현황을 통해 이에 관한 흥미롭고 새로운 관점의 글들을 선보인다.

1. 지렁이의 부드러운 건축물 만들기 | 심효원
2. 땅을 파는 손 | 윤원화
3. 제가 깊이 있다고 말한 적 없었는데요... | 나원영

시와 소설 그리고 희곡

이번 호의 <시와 소설 그리고 희곡>은 문학이 한 시대의 가장 민감한 촉수로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보여준다. 김나현·김성중·이주혜·임수현 씨의 단편소설과 박미란·송희지·윤지양·차현준 씨의 신작 시에서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며, 그간 희곡을 지속해서 실어온 본지의 편집 방향이 옳았음을 증명하듯, 김연재 씨의 희곡 작품은 텍스트로서의 희곡이 지니는 고유의 매력을 체험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텍스트 실험 공간

이번 호 <텍스트 실험 공간>에선 본지를 통해 등단한 소설가 강대호 씨가 빚어내는 그 특유의 소설적 호흡과 재능을 만나볼 수 있다. 결코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리라 믿는다.

지금 이 언어

현장 비평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지금 이 언어> 난에서는, 김보경 씨가 김소연과 정나란의 신작 시집을 ‘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호명 아래 세밀하게 분석하고, 박대현 씨가 오은과 성기완의 신작 시집을 ‘이름의 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그때 그 실험

<그때 그 실험> 난에서는, 오연경 씨가 4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최승자의 『즐거운 일기』(1984)를 ‘사랑에 실패하는 주체 되기’라는 시각에서 새롭게 읽으며 여전히 우리 안으로 돌아오는 그 시어들의 걸을 살핀다.

문학실험실 신간 리뷰

<문학실험실 신간 리뷰>로는, 양선형의 중편소설 『V섬의 검은 짐승』과 구병모 중편소설 『단지 소설일 뿐이네』를 노태훈 씨가 조명한다. 그의 말대로 “소설을 읽는 행위는 그 어떤 예술 장르의 수용보다 적극적이며 전위적이다. 그러므로 소설은 각자의 것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차례

특집: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그 개체성과 집단성

1. 개체성의 진화와 인공지능의 개체성 | 최지범
2.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 | 김태환
3. 창의와 집단 지능: 인공지능은 창작하지 못한다, 다만 제시할 뿐이다 | 김재인
4. 나르시시즘의 기억 | 김대산
5. 근대적 개인의 소멸과 극장의 몸: 거기 누가 존재하는가? | 조만수
6. 저자의 형상들: 롤랑 바르트의 경우 | 한석현
7. 두 번째 인간: 인공지능에 대한 문학적 상상 | 이은지

특집과 함께—현장의 목소리: 인공지능 앞의 문학

1. AI의 시집에서 내가 쓴 시 발견하기 | 김선오
2. 인공지능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가 | 서이제
3. ChatGPT가 알려준 것들 | 이근화
4. 마음 기계 마음 | 정지돈

시와 소설 그리고 희곡

- 고드름 제거반 | 김나현
- 맥주의 알 | 김성중
- 늑미기肋未紀 | 김연재 *희곡
- 봄날의 꿈 외 2편 | 박미란
- 루주rouge 외 2편 | 송희지
- 비문 외 2편 | 윤지양
- 안개의 기분 | 이주혜
- 포구 경유 | 임수현
- 나의 나의 라임 라임 외 2편 | 차현준

텍스트 실험 공간

- 팔봉입니까? 슈봉입니까? | 강대호

작은 기획: 채굴 문화와 미적 감각

1. 지렁이의 부드러운 건축물 만들기 | 심효원
2. 땅을 파는 손 | 윤원화
3. 제가 깊이 있다고 말한 적 없었는데요... | 나원영

지금 이 언어

- 밤을 지키는 사람들: 김소연의 『촉진하는 밤』과 정나란의 『이중 연습』 | 김보경
- 이름의 정치학: 오은의 『없음의 대명사』와 성기완의 『빛과 이름』 | 박대현

그때 그 실험

- 사랑에 실패하는 주체 되기: 최승자의 『즐거운 일기』 | 오연경

문학실험실 신간 리뷰

- 소설 독법: 양선형 중편소설 『V섬의 검은 짐승』과 구병모 중편소설 『단지 소설일 뿐이네』 | 노태훈